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2만4265명... 전년에 비해 19%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저소득 임시직 등 격차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코로나19와 사회복지 분야 변화 방향성 연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수급자 기준)는 2만4265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해 4월(2만352명)보다 약 19% 늘어난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

월(1만9068명)보다는 약 2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지난해 4월→올해 4월) 전국 평균 증가율은 17%다.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위기가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의 올해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주요산업인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는 전년에 비해 각각 6.4%, 8.1% 감

소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가파른 곳으로 꼽힌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실업률은 전년보다 1.3%p 상승한 4%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남 1.7%p, 서울 1.6%p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향후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이기 때문이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계자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인구구조, 노동시장, 가계소득, 주택가격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난상황 이후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지속성'과 '확장성'에 있다"며 "지속성은 사회보험 등 제도적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 역할이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확장성은 제주지역 단위에서 요구되는 소득보장 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변이바이러스 감염 폭발적 증가세

최근 일주일새 25명 확진 델타 바이러스가 대다수

제주지역에서 일주일 사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5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중 17명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일주일도 내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25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17명, 알파 변이바이러스는 8명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 확인됐다. 기존 집단사례로 분류된 '제주시 직장 4'

관련 1명이 알파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로 분석됐다.

또 신규 집단감염 사례 중 ▷제주시 게스트 하우스 관련자 1명(델타 변이)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2명(델타 변이) ▷광주광역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1명(델타 변이)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검출자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 제주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77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지난 2월 이후 제주지역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400명이다.

"부모에 학대당한 영아 전문 위탁가정서 보호"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원래 살던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2세 아동을 바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전문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아동 가정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원래 가정으로부터 분리 조치된 피해 아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위탁 가정에서 최대 6개월 간 보호받는다. 제주도는 분리 조치된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으로 현재 6곳을 선정할 상태다.



한 여름 강정천 풍경. 더위가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3일 서귀포시 강정천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집단감염으로 화 키우는 지인모임

이달들어 총 51명 확진... 도 "지인 등 만났다 n차감염 노출"

제주지역에서 지인 모임, 직장 등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800명을 넘어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 21명(1765-1785번)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18명(1786-180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80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달 들어서만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간 만남, 직장 내 전파 등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확진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n차감염으로 인해 5명 이상이 확진돼 집단감염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서비스 업체 직원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주시 직장5' 집단감염의 여파로 현재까지 총 30명이 감염됐다.

해당 집단감염과 관련해선 밀폐된 근무환경으로 인한 비말 확산과 방역수칙 위반이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7명 중 5명이 지난달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도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가족 및 지인과 만남을 가지며 n차감염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집단감염 확산세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주공항 지상조업서비스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진단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공항의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

에 걸쳐 진행한다.

신규 집단감염도 생겨났다. 지난달 29일 서귀포 모처에서 지인간 만남이 이뤄진 후 참석자를 포함해 가족과 지인 등 현재까지 8명이 확진돼 '서귀포시 지인모임'으로 분류됐다.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18명 중 1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4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8-9월을 위기 기간으로 설정해두고 있고, 위기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8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입도객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최소 3일 이상 계획을 세우고 제주에 여행을 오는 분들께서는 자신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나 영국에 거주하는 토목 사업가인데..."

카카오톡으로 재력이 행세 5개월간 31명에게 4억 편취 지법, 태국인 징역 3년 선고

영국 사업가를 사칭해 수억 원을 편취한 4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태국)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조직에 가입한 후 5개월간 31명에게 총 4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나선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1월 24일 카카오톡에서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 사업가를 사칭, A씨에게 접근한 뒤 "나의 전 재산인 100억원 상당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 달라. 내가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운송회사 사이트 주소를 보내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총 3회에 걸쳐 2400여만 원을 입금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조직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 2일까지 A씨를 비롯한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약 3억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제주 교통사고 치사율 1.69%

교통안전공단 전국사고 분석

지난해 제주지역 교통사고 치사율은 1.69%로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은 1.47%다.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8대 특별·광역시 중 제주지역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울산이 1.3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서울이 0.62%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도 지역의 경우 전북이 3.41%로 가장 높았다. 충남(2.92%), 경북(2.79%), 전남(2.78%)이 뒤를 이었고, 제주는 1.69%를 나타내며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1.17%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특별광역시 3.5명, 도 지역은 10.6명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10.6명으로 집계됐다.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